

## II. 견진성사<sup>1)</sup>

신성근 신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 함께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이며, 이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sup>2)</sup>

### 1. 구원 경륜에서의 견진성사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기다리던 메시아 위에,<sup>3)</sup> 그 구원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이 내려오실 것이라고 예고했다.<sup>4)</sup>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신 것은,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징표였다.<sup>5)</sup>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명은 성부께서 그분께 “한량없이 주시는”(요한 3,34) 성령과 이루는 완전한 친교 안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성령의 이 증만은, 오로지 메시아만이 아니라 모든 메시아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었다.<sup>6)</sup>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부활 날 처음으로 실현하셨으며, 성령 강림 날에 더욱 분명하게 실현하셨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하느님의 위업”(사도 2,11)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신 것을 메시아 시대의 징표라고 선언한다.<sup>7)</sup> 그때 사도들의 설교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도 받았다.<sup>8)</sup>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5-1314항 참조 정리.

2) 교회 헌장, 11항. 「견진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2항.

3) 이사 11,2 :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4) 이사 61,1 :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5) 요한 1,33-34 :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6) 에제 36,25-27 :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7) 사도 2,17-18 :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8) 사도 2,38 :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새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교 입문의 초보적인 교육 주제들 가운데 세례와 안수의 교리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 전승은 안수를 견진성사의 기원으로 당연히 인정하였으며, 이 견진성사로써 성령 강림의 은총이 교회 안에 영속되고 있다 하겠습니까.”<sup>9)</sup>

일찍이 성령의 부여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안수에 향유(축성 성유) 바름이 추가되었다. 이 도유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밝혀 준다.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사도 10,38) 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도유 예식은 서방 교회와 마찬가지로 동방 교회에서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도유’ 성사라고 부르거나 ‘축성 성유 도유’라고 부른다. 서방 교회에서 견진이라는 이름은 이 성사가 세례를 확정하고 동시에 세례의 은총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2. 견진성사의 표징과 예식

### 1) 성경에 나타난 도유(기름 바름)

성경과 고대 사회의 상징체계에서 기름 부음은 풍부한 의미가 있다. 기름은 풍요와<sup>10)</sup> 기쁨의<sup>11)</sup> 표징이다. 기름은 정화하고(목욕 전후에 기름 바름) 유연하게 하며(육상 경기 선수와 씨름 선수에게 기름을 바름), 깨지고 상처 난 곳을 낮게 하므로 치유를 상징하고,<sup>12)</sup> 아름다움과 건강과 힘이 넘치게 한다.

구약 성경에서 도유의 예를 찾아보면, 아론은 도유로 대사제가 되고(레위 8,12.30 참조),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도유하였다(1사무 10,1 ; 16,13 참조). 이와 같은 도유는 도유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고 비범한 결과를 내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서 도유받으셨다. 히브리서는 기름 바름에 관한 구약성서의 구절을 적어도 상징적으로 예수께 적용하였다.<sup>13)</sup> 이렇게 하여 기름은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보내진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에의 참여와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게 되었다.

### 2) 성사 안에서의 도유

기름 바름의 이 모든 의미는 성사 생활 안에서도 발견된다. 세례 전에 예비 신자

9) 바오로 6세, 교황령 「하느님 본성에 참여」: AAS 63(1971),639면.

10) 신명 11,14 : 주님께서 너희 땅에 제때에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11) 시편 23(22),5 :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12) 이사 1,6 :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13) 히브 1,8-9 : 아드님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 주셨습니다.”

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정화와 강화를 뜻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와 위안을 의미한다. 세례 직후와 견진과 서품 때에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은 축성되었다는 표징이다. 그리스도인, 곧 견진의 도유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이 가득히 지니신 성령의 충만에 더 깊이 참여함으로써,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sup>14)</sup> 풍기게 된다.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은 이 도유를 통하여 ‘표지’, 곧 성령의 인호를 받는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그 사람을 상징하며,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sup>15)</sup>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다.<sup>16)</sup> — 그래서 병사들에게는 대장의 인장을 찍었으며, 노예한테는 주인의 낙인을 찍었다. — 인장은 법률 증서나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며, 때에 따라서는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사 안에서 역시 날인받았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2코린 1,21-22). 성령의 이 날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표시인 동시에, 종말의 큰 시련 때에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 3) 견진성사의 거행

축성 성유(크리스마)의 축성은 견진성사의 거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며, 어느 면에서는 견진성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교는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 중에 교구 전체에서 사용할 축성 성유(크리스마)를 축성한다.

그리고 주교는 전체 견진자들 위에 두 손을 펴는데, 사도 시대부터 이 안수는 성령을 준다는 표징이다. 그리고 주교는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청원하는 기도를 드린다.<sup>17)</sup>

그다음에 성사의 핵심 예식이 이어진다. 즉 견진성사는 (주교가) 한 손을 얹고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는 말로써 수여한다. 그리고 견진성사의 예식을 끝맺는 ‘평화의 인사’는 주교와 모든 교우가 이루는 교회의 친교를 가리키고 표현한다.

### 3. 견진성사의 효과

견진성사의 효과는 옛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의 특별한 부여라는 것이 성사의 거행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

14) 2코린 2,15 :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 창세 41,42 :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아마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16) 신명 32,34 : 그것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보고 안에 밀봉되어 있지 않느냐?

17) 「견진성사 예식서」, 25항.

고 심화시킨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뿌리를 내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부르게 한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 시키며, 우리와 교회의 결합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킨다. 또한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 준다.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날인, 곧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을 받았다.<sup>18)</sup>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정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견진성사도 세례성사처럼 단 한 번만 베풀어진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를 새겨 주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인장을 찍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시어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표지이다. 견진의 ‘인호’는 교우들이 세례성사로 받은 보편 사제직을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마치 직분으로 하듯이, 고백할 힘을 받는다.

#### 4. 견진성사를 받을 자.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영세자들은 모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만 한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는 일체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sup>19)</sup> 물론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없이도 세례성사는 유효하며 효과가 있지만, 그리스도교 입문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 세기에 걸쳐 교회는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죽을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아이라도 견진성사를 주어야 한다.<sup>20)</sup>

때로 견진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라고 하지만, 신앙의 성년과 자연적 성장의 성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은총은 공로 없이 무상

18) 성령 칠은 :

- ① 지혜 :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것에 맞 들일 수 있게 하는 은혜.
- ② 통찰 : 하느님의 진리가 참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은혜.
- ③ 의견 :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
- ④ 용기 :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은혜.
- ⑤ 지식: 교리와 성경의 뜻을 잘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
- ⑥ 공경 : 하느님을 참아버지로 알아 사랑하여 공경할 수 있게 하는 은혜.
- ⑦ 경외심 : 공포심이 아니라, 죄를 지어 하느님을 떠날까 갖게되는 은혜.

19) 교회법, 제890조.

20) 교회법, 제891조 :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선택받는 은총이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나이로 영혼의 나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노년의 원숙함을 어린 시절에 받을 수도 있다.

견진성사 준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고, 성령과 성령의 활동, 그분의 은혜와 부름에 대하여 더 생생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사도적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 교리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본당 공동체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본당 공동체는 견진 받을 신자들을 준비시킬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sup>21)</sup>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써 온순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힘과 은총을 받고자 준비하여야 한다.<sup>22)</sup>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의 경우에도 견진자들은 대부나 대모의 영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두 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성사 때의 대부나 대모와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3)</sup>

## 5. 견진성사의 집전자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sup>24)</sup> 필요한 경우 주교는 사제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sup>25)</sup> 자신이 직접 이 성사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며, 견진성사의 거행이 세례성사와 시간상으로 분리된 것은 이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았다.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 받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회의 사도적 기원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하는 것이 이 성사의 효과임을 잘 나타낸다.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아무 사제라도 견진을 줄 수 있다.<sup>26)</sup> 참으로 교회는 그 자녀 중의 누구라도,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선물로 완전해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21) 「견진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3항

22) 사도 1,14 :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23) 「견진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5.6항.

24) 교회법, 제882조 참조.

25) 교회법, 제884조 2항 참조.

26) 교회법, 제883조 3항 참조.

